

公州 灘川 先史遺蹟

金 永 培

茂朱九千洞에서 發源하여 長長 數百里를 흘러 西海로 流入하는 錦江 沿岸에 形成된 古代文化는 자못 큰 바가 있다. 이 錦江文化圈의 하나인 公州郡 長岐面 石壯里의 錦江北岸 河岸段丘에서 舊石器文化의 遺物包含層이 發見되어 一九六四年 부터 十餘年間 延世大學校 博物館에서 發掘調査한 바 있는데 地下 一—m까지 파 내려가던 중 二·五m—四m 地層에서 채집한 木炭을 조사한 결과 三〇、六九二—三三、〇〇〇 BP 즉 지금부터 약 三〇〇〇〇年前이라는 방사선 탄소연대가 나왔다. 또한 최상층에서는 二〇、八二五 BP 라는 연대가 나와 한국의 구석기문화 존재의 확증을 얻게되어 세계 학계의 주목을 집중 시킨 바 있으며 錦江의 南岸인 公州郡 反浦面 馬岩里 俗稱 龍窟에서 채집 보고된 구석기는 앞에서 본 석장리 상층의 후기 구석기문화 유적의 석기와 상동하고 있음은 금강 문화권의 선사문화와 한국의 구석기문화 형성연구에 좋은 자료이며 公州의 灘川面도 금강의 南岸에 따라 形成된 지대이어서 面內의 여러 곳에서 先史 유적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 금번 발견된 三角里 유적에서는 다른 유적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재료가 나왔고 雲谷里에서 발견된 석기와 南山里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한데 모아 간단하게 소개 코저 한다.

一、三角里 先史遺蹟

이 유적은 公州郡 灘川面 所在地인 三角里에서 「여느내」를 건너 북쪽으로 約 五〇〇m쯤 가면 평탄한 丘陵의 南走한 등성이에 密集되어 있는데 三角里一區 山七二번지에 유존되어 있다. 유적이 발견된 것은 一

九七六年 四月 二一日인데 이 丘陵上에는 수십년씩 성장한 松林地帶이 던 것을 果樹園으로 造成키 위하여 벌목을 하고 植樹孔을 파다가 五、六개소의 유구가 발견되었다.

發見者는 公州郡 灘川面 三角里 四〇九번지에 거주하는 李昌九 李光熙 曹奎喆氏 등이고 토지 소유자인 李昌九氏의 申告로 현장을 조사하였으며 그 상황을 간단히 소개한다.

(一) 遺構의 構造狀態

이 유구들은 錦江을 뒤에 두고 높은 산맥이 東西로 연속되어 北쪽으로 가리우고 있는데 이 높은 산맥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내려오다가 遺蹟地點에 와서는 급격히 낮아지면서 수천평의 平地가 되어있고 여기에 正南向하여 稜線을 따라 一列로 石棺遺構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석판들은 地表下 約 二六cm 정도에서 모두 발견된 것으로 石棺用材는 자연의 板石을 利用하여 組立되어 있으나 조사시에는 이미 攪亂되어 있어서 原型을 정확히 판단 하기는 어려웠고 다행히 유물과 石材들이 현지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개략적인 상태를 파악 할 수 있었던 것이다.

石棺들의 규모는 거의가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 지점의 유적은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石棺의 발견이 六개소인데 그중 一기는 거의 方形에 가까운 구조로 매장물은 石犁 一개를 매장 하였다.

다른 二개의 石棺은 長方形으로 되어 있고 각기 石劍 一丁씩과 石鏃을 매장 하였고 또다른 二개의 석판에는 石器를 제작하는 原石과 剝片들을 매장 하였는데 原石은 白色粘板岩과 礫石으로 된 黑色粘板岩등이며 다른 또 한개의 石棺에는 朱色粗質 無文土器片을 매장 하고 있어서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灘川面 一帶에서 先史遺蹟이 발견된 곳은 四개소로서 灘川面 三角里 松鶴里 雲谷里 南山里 등인데 그중에서도 三角里 유적은 매우 흥미를 끌고 있다.

石棺에다 石器原石 또는 剝片들을 매장한 예는 매우 드문 일이며 이곳에서 석기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史料되고 附近에 住居址가 유존할 가

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二) 出土遺物

石犁

이 돌보습은 타원형으로 된 黑色粘板岩으로 만들었는데 前面은 연마가 잘 되었으나 後面은 거친 다듬질을 하였고 農耕에 많이 사용한 관계로 끝부분이 磨損된 곳이 있다.

長 三八·五 cm

幅 一七 cm

厚 四 cm

石劍

石劍二點이 出土되었는데 一丁은 黑色粘板岩이며 一點은 白色粘板岩으로 二點 共히 一段柄式으로 通形이다.



圖 1. 三角里 石犁

黑色劍 長 三一·七 cm

白色劍 長 二七·六 cm

石鏃

出土된 三個의 石鏃들은 모두 單莖式柳葉形인데 그 중 一個는 半切되었다.

黑色鏃 長 一三 cm

白色鏃 長 九·六 cm

白色鏃 長 六 cm 半切分

二、松鶴里 先史遺蹟

松鶴里는 三角里에서 西쪽으로 약 二 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의 유적도 東西로 뻗은 丘陵上에 유구가 밀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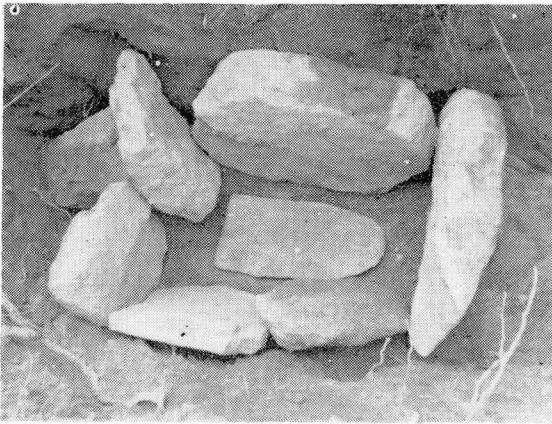


圖 2. 三角里 石犁埋藏狀態



圖 3. 三角里石劍埋藏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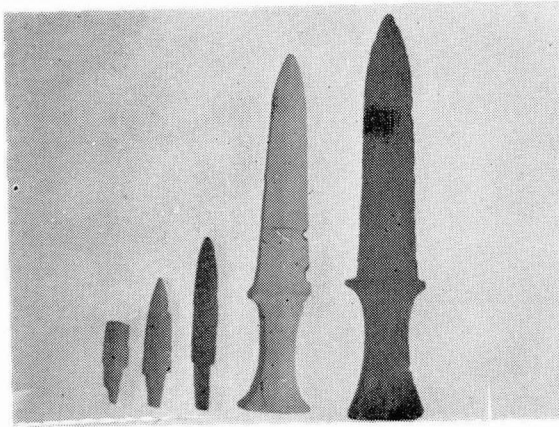


圖 5. 三角里 石劍石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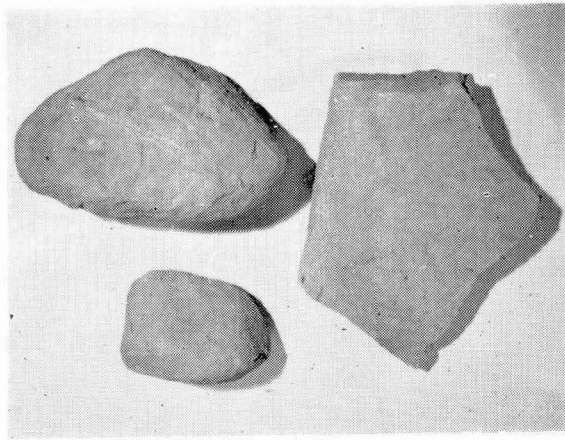


圖 6. 三角里 石器原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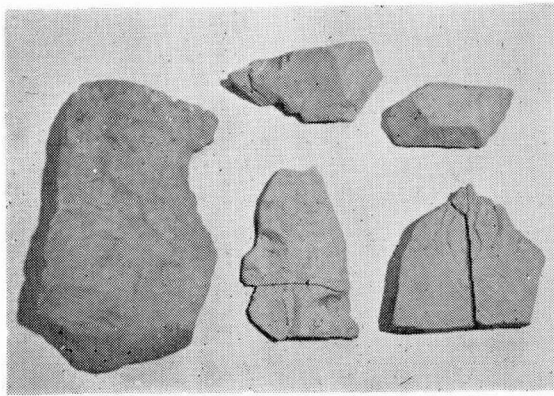


圖 7. 三角里 石器剝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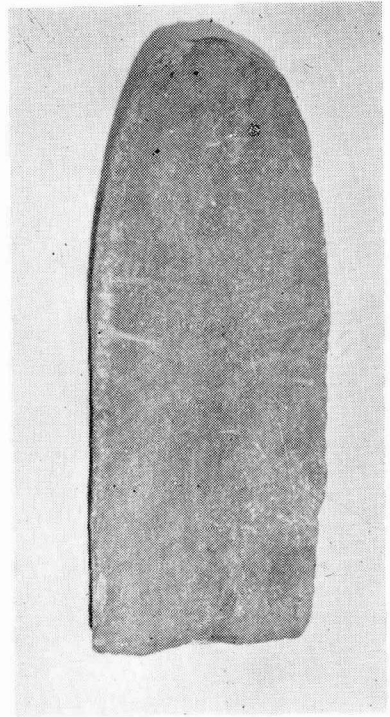


圖 4. 三角里 石犁

三、雲谷里 發見石器

여기에서 발견된 유구와 유물들은 대략 赤色粗質甕棺등인데 이곳도 이미 耕作으로 인하여 교란되어 있어서 수년전에 중앙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하였으나 유구가 거의 교란되어 좋은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발견된 赤色大形甕棺 하나가 공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三、雲谷里 發見石器

雲谷里는 松鶴里에서 北쪽으로 丘陵하나를 넘어가면 바로 錦江邊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이번에 발견된 石器들은 農夫가 산 기슭에서 개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一括유물인데 이것도 역시 石棺墓이던것을 전부 해체하여 石材는 다른용도에 利用한 후여서 유구 조사는 불가능 하였으며 出土 유물만은 완전히 수습되었다.

유물중에는 石鏃이 대부분이고 石劍破片一點과 硬玉製 管玉一點이

並出되었으며 石鏃은 三角里 석촉과 계통이 같은데 그중 하나가 裂莖式인 것이 다르다 하겠고 管玉은 이 유적에서만 보이고 있다.

實測値는 實測圖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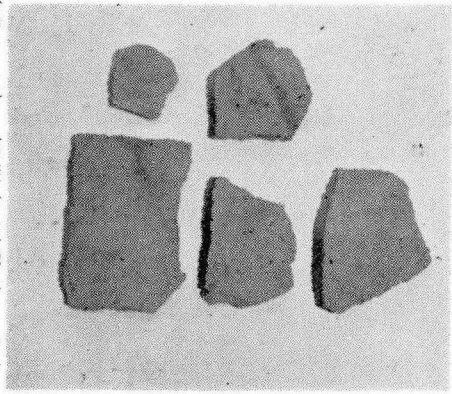


圖 8. 三角里 赤色土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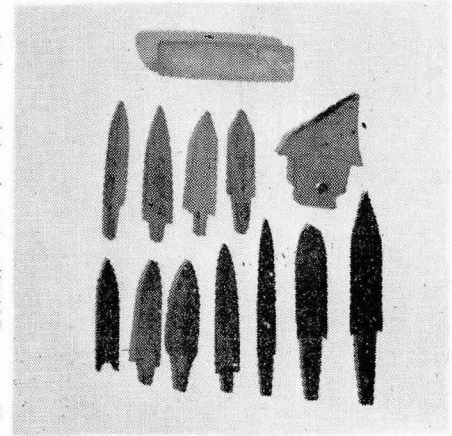


圖 9. 雲谷里石鏃管玉・石劍片

高四五cm

口徑一二・五cm

底徑二〇・五cm

四、南山里 先史遺蹟

南山里는 面所在地인 三角里에서 南쪽으로 약 一〇km 되는 곳인데 이附近의 선사유적은 대단히 광범위하게 分布되어 있어서 草村面 松菊里와 蓮花里등과 더불어 중요한 곳이다.

南山里 유적의 개략을 보면 土壙墓 石棺墓 甕棺墓等 多様な 形態를 가지고 있으며 石棺에는 대부분 石器등이 매장되어 있고 甕棺墓는 生土를 甕관이 들어갈 만큼 파고 納骨한 甕관을 안치한 뒤 一枚의 板石으로 口部를 덮고 흙으로 묻어 버리는 방식이 다수이며 赤色粗質 甕棺은 其 底部에 花盆 모양으로 漏水孔을 만든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이곳에서 수습된 甕관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以上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灘川一帶의 先史유적을 개관하여 보았다. 인접지인 扶餘郡 草村面 松菊里의 遼寧式 銅劍 住居址 蓮花里의 細形銅劍等 多様な 遺蹟들이 이 灘川을 中心으로 하나의 文化圈을 形成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고장의 조사는 물론 注目하여야 할 지점이라 하겠다

(國立公州博物館長)



圖 10. 山南山里甕棺